

영암농산물 클로렐라농법

현장실증 재배에 나선다

군, 오늘 클로렐라급여 오리 시식 평가실시

영암군에서는 14일 클로렐라농법을 적용한 육용오리 시식평가를 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증 추진하고 있는 클로렐라농법은 영암군 주산작목을 대상으로 클로렐라의 활용가치를 검증하여 우수시례를 발굴 확대 적용하고자 작물분야에서는 무화과, 고구마 등 8개 주요작목에 19농기를, 축산분야에서는 육용오리, 닭 등 3농기를 선정하여 지난 4월부터 실증재배시험을 추진 중에 있다.

각 작목별로 전 생육기간에 걸쳐 클

로렐라 살포(급여)를 달리하면서 효과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오리시식회는 클로렐라가 포함된 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클로렐라 급여와 비급여 오리를 구분하여 백숙, 로스 등 요리방법별로 시식 평가를 실시한다.

앞으로 증체량 등 조사 및 검사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또한 복포대학교에 용역 의뢰하고 있는 무화과 등 8개 작목에 대해서 클로렐라 살포에 따른 작물 생육상태의 변화분석과 수확 후 당도, 수량성 등 상품성 조사 및 경제성 분석 등 오는 11월까지 정밀한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클로렐라는 광합성을 하는 단수녹조류 미생물로 기능성 식품, 바이오에너지 산업 등에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에서도 이용되고 있는 미생물로 농촌진흥청 등 실험결과에 의해면 생육촉진, 저장성향상, 수량증대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후 영암의 주산작목에 대해서 클로렐라농법의 친환경 농법 효과를 기대하며 영암농산물에 대해 판매시장 확대 및 영암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해 영암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 광복절 특별공연 실시



내일 진도개 테마파크서

진도군이 오는 15일 진도개테마파크에서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 활용한 광복절 특별 공연을 실시한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특별 공연은 진도개의 우수성을 직접 알 수 있는 진도개 공연, 경주, 어질리티 등이다.

또 진도개테마파크 내에 사육장, 진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진도개테마파크가 진도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진도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무안군,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청년활동가 추가 모집

무안군은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활동가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을로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활동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은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농업회사 등에 근무하며 월 200

만원 내외의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 받는다.

청년들은 최대 2년간 마을로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후 계속근무를 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전남지역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무안군에서는 23개 사업장에 근무할 32명의 청년을 모집하

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27일 까지 전라남도 일자리 통합망 (<http://job.jeonnam.go.kr>)에 신청하면 되며 합동채용면접을 통해 선발된 청년들은 사전 직무교육을 거쳐 9월 16일부터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울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하는 대회인 만큼 완도군은 홍보에 공을 들였다.

홍보관에서는 ‘완도 토요싱싱콘서트’와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축제’를 비롯해 여름철 대표 휴양지이자 국내에서 최초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변에 주어지는 ‘블루플래그’ 인증을 획득한 신지면사삼리해수욕장 홍보와 함께 노르딕워킹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 등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대회 기간 동안 KTX역, 티미널, 호텔 등 다중 집합 장소에 3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관광홍보지도 및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적극 펼쳤다.

특히 15일부터 16일까지는 자체적으로 ‘완도 홍보의 날’을 운영해 완도의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완도 알리기 SNS 이벤트를 실시 및 완도군의 마스코트인 팡이와 행이가 행사를 돌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바다 완도와 해양치유산업을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세계 수영 동호인에게 완도의 매력 알리다

광주 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 대회서 홍보관 운영



완도군은 5일부터 18일까지 남부대 학교에서 열리는 2019 광주 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홍보관을 운영하여 군의 역점 사업인 해양 치유산업 등을 알려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수영 동호인이 참가하는 2019 광주 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는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84개국의 마스터즈 수영 선수 5,700여 명이 참가 한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참여

중독자,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고, 도마, 칼은 소독하여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예방수칙을 꼭 지키줄 것과 특히 만성 간질환자, 당뇨병, 알콜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목포시,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주의 당부

목포시는 올해 전남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첫 환자가 발생하여 사망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 환자는 당뇨 및 간경화를 기저 질환으로 앓고 있었으며 지난 2일 구토, 어지러움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 증상이 악화돼 지난 3일 광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5일

사망했다.

목포시 보건소는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을 강화하고, 어패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매주 수족관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비브리오패혈증 감염대비 대응에 나섰다. 또, 고위험군 시민에게는 어패류 익혀먹기 등 감염주의 당부문서도 발송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6~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간질환자, 알콜

강진군, ‘건강걷기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



음수와 심박수 등 본인의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운동 전·후의 혈압, 혈당, 체질량지수를 측정한 자료의 비교를 통해 참가자들이 몸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스스로 운동의 중요성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진군은 오는 11월까지 건강걷기 참여 대상자의 운동량을 파악하고, 매월 걷기운동 우수자를 선정하여 흥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강걷기 플러스’ 사업에 많은 군민들의 관심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건강증진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들에게 행복한 강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해남군, 조사료 동계

작물 종자 125톤 공급

해남군은 관내 한우, 젖소 사육농가 및 조사료 경영체에 동계 사료작물 종자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조사료 동계작물 종자는 250ha 면적, 125톤으로, 영양소 함량이 높고 풀이 부드러워 사료 가치가 높은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주로 공급한다.

특히 해남에서 주로 재배하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사일리지 외에도 건초나 헤일리지 같은 저수분 풀사료를 생산할 수 있어 고품질 사료작물로 각광받고 있다.

공급되는 종자는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 검사를 완료한 고품질 조사료 종자를 지원하게 된다.

읍·면사무소에 8월말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남진도축협을 통해 9~10월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형태는 보조 30%, 자부담 70%이다.